

명사들 음성으로 다시 듣는 미당의 시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 2월 26일 저녁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 중에서

미당의 시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했고 때로는 자연을 칭송하기도 했으며, 또 때로는 그리움을 노래하기도 했으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동국대와 사단법인 미당기념사업회(이사장 김원)가 공동 주최하는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가 2월 26일 저녁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공연 제목인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는 미당의 시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에서 따왔다고 한다.

시인 연극배우 가수 등이 함께하는 이 공연에서는 미당을 추억하는 30여 편의 시가 낭송됐다. 유자호 시인(미당 기념사업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시인

민영, 정진규, 민용태, 문효지, 김초혜, 문정희, 이시영, 김기택, 정팔별, 이영광, 박형준, 허혜정, 김행숙 등이 출연했고 연극배우는 오현경, 전무송, 손숙, 윤석화가 출연해 '동천' '귀족도' '푸르른 날' '눈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등을 낭송했다.

문정희 시인은 "시인의 죽음은 육신이 죽은 것이라 했다. 시인의 시가 살아있는 한 시인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달았다. 서정주 선생은 위대한 순결로 우리 곁에 아직 살아있다"며 시인을 그리워했다.

민영 시인은 "제가 선생님을 처음 본 것은 22세에 마포 공덕동 맥으로 찾아갔을 때다. 시를 쓰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생에서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미당 역시 다를 것 없는 인생을 마치고 하늘로 가셨다. 제자로서 눈물만 흐른다"며 미당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또한 시낭송가들로 구성된 재능시 낭송 협회가 출연 '고향에 살자'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라는 이리도 살고 싶

은가 '국화 옆에서' 등을 통해 시낭송 공연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밖에도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출연 '미당 탄생 100년 새롭게 찾은 시' 중에서 '어떤 종이장수 친구에게'를 낭독해 주목 받았다. 공연으로는 소리꾼 장사익, 명창 박정옥, 인디밴드 '커피다'가 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특히, 박정옥 명창은 미당의 시 '신부'를 창으로 꾸며 신명나는 무대를 꾸몄다. '신부'는 서럽고 안타까운 신부의 이야기로 국악 가락으로는 처음 소개했다. 박 명

시인 연극배우 가수 등 출연

미당의 시 30여편 낭송해 감동

창은 올해 안에 서정주 시인의 시집 <질마재 신화>(1975)를 새로운 공연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550여 명의 관객이 참여했다. 객석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 계단 여기저기 임시방석을 깔고 앉았고 무대 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들도 있을 만큼 이번 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사회를 맡은 유자호 시인은 "이해랑 예술극장의 객석이 400석인데 이를 훨씬 넘는 55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것을 보고



동국대와 사단법인 미당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미당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시낭송 공연이 2월 26일 저녁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재능시 낭송협회 회원들의 공연 장면.

놀랐다. 2시간이 넘는 공연 동안 핸드폰 벨이 한번도 울리지 않을 정도로 관객들의 수준도 높았다. 미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어 너무 감동적이었다. 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시를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공연을 끝낸 소감을

이야기 했다. 유자호 시인은 1968년에 신아일보 신춘문예 입선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미당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미당이 결혼식 주례사를 서술 만큼 각별한 관계였다고 한다.

앞으로 미당기념사업회는 미당 전집 출간과 시낭송 공연을 꾸준히 개최해 미당의

시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동국대 유재웅 교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당의 시를 잘 모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미당기념사업회는 전집 발간과 공연으로 미당의 시를 알려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시시각각 변하는 우주 화폭에 담아”

한경해 개인전 3월 4일~9일 가나아트스페이스서

“상대가 곧 나이고, 나를 비우면 객체가 주체가 되고, 주체는 이미 객체가 되어 돌이 하나로 통합니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생물과 무생물, 생과 멸, 더러움과 깨끗함 등 전부가 하나의 마음 자리에서 우러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찰나처럼 흘러가는 순간이지만 머무르고 싶은 순간의 시간을 물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매일 1000배로 뇌성마비를 극복한 화가 한경해 씨가 제 7회 개인전을 연다. 작품은 '교체되는 시간들'

매일 1000배로 뇌성마비를 극복한 화가 한경해 씨가 제 7회 개인전을 연다. 3월 4일~9일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물 속에 담긴 우주자연'을 주제로 관람객들을 찾았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교체되는 시간들' '2015 머무르고 싶은 순간들' '수초 도시' 등을 통해 찰나의 순간을 표현해 낸다. '교체되는 시간들'은 끝없이 들끓는 밀물과 썰물처럼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삼

라만상을 물에 비유했다. 한 작가는 "순간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며, 또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듯 말이다. 그 찰나를 포착해 작품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자연을 화폭 속에 담아내며 끊임없이 변

화하는 우주 자연의 섭리를 화폭 속에 펼쳐고 있는 한경해 작가. 그는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다. 또한 세상의 모든 이들은 스스로 존귀하다. 이런 불교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이태리 찾아가는 현대선화

배중훈 작가 밀라노 아트페어 참여

배중훈 작가가 3월 19일~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슈퍼스튜디오에서 열리는 밀라노 아트페어를 찾는다. 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의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 10여 점을 선보인다.

배중훈 작가는 "지난 11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트페어에 참여해 유럽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부스로 참여해 불교문화정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선화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 작가는 지난 13년 동안 불교를 쉽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카툰과 일러스트, 페인팅 작업을 해왔다.

이번 출품작 중 하나인 '달, 해바라기, 탑'은 동양적 정서인 여백 안에 명상과 선적 요소를 배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달'은 원형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외적 형상은 매일 조금씩 커지고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수행을 통해 참된 '나'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이면서 세상 만물이 돌이 아니라 결국 하나이



배중훈의 '달, 해바라기, 탑'

며, 형상은 항상 변하나 본질은 영원함을 표현해 불교의 정수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이번 밀라노 아트페어 참여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643>)도 시작했다.

한편, 배중훈 작가는 2010년 불일미술관 개인전을 시작으로 아트스페이스 선+, 명상카툰 2인전 등 다수의 전시를 가졌다.

정혜숙 기자

정목 스님 BTN불교방송 4대 도시 공개방송

개국 20주년을 맞은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정목 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의 4대 도시 투어 공개방송을 개최한다.



정목 스님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워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투어 공개방송은 2월 26일 광주 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3월 4일 부산문화회관, 4월 3일 대구학생문화센터, 4월 23일 대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공개방송은 도시별로 토크 주제를 다르게 선정하고, 주제에 따른 정목 스님의 법문과 기도, 발원이 어우러지며 음악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한다.

BTN불교TV는 "지난 20년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스님과 불자, 시청자들에게 대한 작은 보답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공개방송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한다. 사찰 및 단체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02)3270-3402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 1999
아제여행사
AJE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히말라야 고요왕국
복복지수 1위! 부탄 눈레
인공의 마비와 수교, 자연의 수교와 산악의 수교, 눈레의 마비와 눈레
출발일 3월23일/4월10일/5월28일/6월19일

THE SILK ROAD
중동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의 동서 교통로
다코마로드 실�크로드 6일
돈황-우루무치-트루판
출발일 4월13일

출발일 3월23일 **중남미 3개국 11일**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6인출발기준 (4명회차) ₩679만

출발일 5월7일/28일/6월21일/7월27일/8월30일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리벳 8일"

출발일 3월23일/6월5일
리키, 그라노 9일
이탈리아, 카파도키아 파르라리, 아테네, 미오스섬

출: 3월29일 **구하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지장보살(99m), 천하비경 황산, 불해관음상

출발일 5월4일 **중남미 3개국 12일**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8인출발기준 ₩759만

출발일 5월29일/6월13일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 시가제, 마나사르보호수, 수미산, 구계왕국

출발일 4월9일/4월30일 ₩99만원
간성생기 구화상·황상 4일

출: 3월29일 **봄의 도시 곤명 차마고도 여강6일**
곤명, 대리, 여강, 상그리라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베계곡과 선계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1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출: 4월14일/5/19, 6/22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베계곡과 선계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1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오대산/운강석굴/행궁사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베계곡과 선계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1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출: 6월5일 **동티벳불교 야칭스10일**
출발기준: 월/수/금
진정한 리벳수행, 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베계곡과 선계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1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레를지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임베계곡과 선계동자 구비 이야기

출발일 3월21일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간-헤호

출: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중대선사, 불광선사, 자제궁각회